

교회소식

- Covid 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입니다. 속히 교회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의 리듬을 잘 유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공동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잠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범위: 욥기 40 - 42장, 잠언 1-18장 (매일 3장)
- 공동체별 화상 모임이 이번 주 루마니아와 캄보디아 공동체를 마지막으로 잠시 쉽니다(오후 8시).
화 - 루마니아 공동체 (인물연구: 마태)
목 - 캄보디아 공동체 (인물연구: 마가)
- 성전 이전을 위한 전교인 기도가 매일 저녁 9시(각 가정)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기도 제목:
 -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도록.
 - 우리 교회에 합당한 예배 처소가 예비 되도록.
- 제약된 현실 속에서도 상황에 맞는 여러 방법으로 성도 간의 안부와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 주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 방을 통해 전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예배 순서 주보 참조).
- 온라인 헌금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October

교회사역일지

10월 17일(주일)
인도자 성경 공부
10월 27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10월 31일(주일)
감사 주일

기도순서

10월 3일 (주일)
이정인 집사
10월 6일 (수)
김창조 집사
10월 10일 (주일)
장경희 집사
10월 13일 (수)
박소진 집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박제용, 김영옥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39호 2021.09.26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Praise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시편 84:1-4	인도자
찬송	Hymn	26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Prayer of Repentanc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Hymn	287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손조훈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고린도전서 2:1-5	인도자
찬양대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Sermon	복음만이 소망인가?	이태한 목사
찬송	Hymn	268장	다함께
헌금기도	Offering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Closing Scripture		다함께
응답송	Closing Hymn	171장 (1절)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태국에서 사역하는 심재우 선교사 소식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생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태국은 매일 20,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내다가 의료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고, 경제도 너무 어려워져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with Covid’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태국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리라(행 6:4):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에서 새 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나 계속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목양 팀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함께 좀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매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목양 팀에서 매일 아침묵상을 영상으로 찍어서 성도들에게 보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고, 매일 아침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밤 10시에는 매일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성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를 하고,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신앙 훈련과 성도들의 교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 및 케어 그룹 모임: 새신자 양육은 성인 새신자들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새신자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빨리 적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팀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셀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들을 통해서 태국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케어 그룹은 현재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가능하면 전체 교인들이 참여하고, 소그룹으로 나뉘지는 구조로 하다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나눔을 나누기 위해 9월부터 형제/자매 소그룹으로 구별해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1. 말씀을 실천하여 삶으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정이 되도록.
2. 수줍빛 언약교회에서 행해지는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김자경 권사
성	경	Scripture	베드로전서 1:13-17
설	봉	Sermon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9월 19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이 사람들의 증언> 히브리서 11:13~16

모친성 회귀어족인 언어뿐 아니라 사람도 귀소 본능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삽니다. 신앙인들에게 고향은 어떤 곳인지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장에 소개된, 믿음을 따라 죽은(13) 허다한 신앙인들은(12:1) 믿음을 따라 살았기에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은 많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롬 5:3-4).

1) 증인된 삶: 이들은 믿음의 삶을 통해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외국인이며 나그네라고 증언했습니다(13).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아굽은 애굽의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고(창 47:9) 했으며 베드로도 성도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벧전1:1). 나그네는 고향을 그리워하기에 항상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삽니다. 현재 사는 곳에 집착하거나 빠져드는 대신 때가 되면 훌훌 털고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삽니다. 움켜잡고 소유하는 인생이 아닌 내려놓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나그네의 준비입니다. 나그네 길에서 유혹에 빠지고 현혹되어 영적인 힘을 다 빼앗긴 채 되는대로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그네 삶을 마감할 때가 있는 것을 의식하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며 살아야 합니다(히 12:1). 내려놓는 훈련으로 나그네의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2) 진취적인 삶: 나그네는 고향을 향한 적극적인 삶을 삽니다(14).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가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그리워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15). 고단한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자기의 고향이 아니기에 그리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영혼을 거스르는 정욕을 제어하며 삽니다(벧전 2:11). 믿음이 명사형일 때는 실생활에서 정욕을 제어할 힘이 없으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 하신 것처럼 동사형의 믿음으로 살 때는 믿는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약 2:17).

3)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언: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16).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과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계 21:31).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실는지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악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시 2:7)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모습은 실망스럽지만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께 우리 삶을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자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며 진취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언하는 갈보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모든 성도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더하고 열방의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2. 하나님의 자비가 세상에 더 풍성히 임하여 Covid 19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